미국, 이란산 원유 봉쇄… 국제유가 급등

"수입국가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올들어 40% 안팎 치솟아

산유국들 6월까지 감산 조치… 사우디 증산 여부가 관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란발(發) 공급 충격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한시적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형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하루평균 약 1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이란산 원유 수출은 다음 달 2일 0시를 기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셰일오일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좌장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이란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향후 유가를 결정할 변수로 꼽힌다.

◇ 국제유가 3% 안팎 급등세…6개월래 최고치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7%(1.70달러) 오른 65.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 30분 현재 배럴당 3.04%(2.19달러) 상승한 74.16달러를 나타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해 10월 말 이후로 약 6개월만의 최고치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하루평균 250만 배럴이었던 이란의 원유 수출은 최근에는 100만 배럴 수준이라고 미 CNBC 방송은 전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유가가 더욱 확실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전했다.

◇산유국 6월까지 감산조치…사우디 행보 관건=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서만 40% 안팎 치솟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부터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WTI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40달러 선 초반까지 주저앉았다. 작년 연말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탔다.

트럼프 행정부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해 제재 압력을 높이고 있고, 최근엔 리비아의 정정불안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원유공급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이어졌다.

근본적으로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OPEC 회원국, 러시아가 이끄는 OPEC 비(非)회원국은 오는 6월까지 하루 120만 배럴 감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열리는 회의에서 감산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란발 원유 공백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오일머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요구대로 순순히 원유증산에 나설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거듭 유가 하락을 촉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고유가를 원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행보도 변수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에 반발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서 열린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유해 안장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故 김홍일 전 의원, 망월묘역에 잠들다

빗 속 조문객 200여명 고인의 넋 기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23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이날 오후 3시께 280㎞가량 떨어진 광주 망월 묘역에 도착했다.

영정사진 뒤로 노란색 보자기에 싸여 장지에 도착한 김 전 의원의 유골함은 하관식을 하기 전 미리 쌓아놓은 봉분 위로 고이 모셔졌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조문객 200여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천주교식 절차로 진행된 하관식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굳은 표정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장례식을 치르던 유족들은 김 전 의원의 유골함이 진갈색의 흙 아래로 묻히기 시작하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트렸다.

김 전 의원의 부인 윤혜라 여사는 어린 손녀가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며 위로했고, 김 전 의원의 두 딸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슬픔을 달랬다.

김 전 의원의 동생이자 김 전 대통령의 2남인 홍업씨는 유족 대표로 "광주에서도 많은 분이 형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오늘 화장하면서 보니 수술로 몸 안에 있었던 쇳덩어리들이 나왔다"며 "이런 걸 지니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에 안도의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쯤이면 형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러분도 형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해달라"고 말했다.

가족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조문객들은 김 전 의원의 묘지 앞에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농어촌 노인, 에너지 걱정없는 '안심 공동-홈' 조성

모듈러주택 10여동·효도주택 30여세대 공급… 전국 첫 추진

전남도가 초고령화시대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에 나선다. 농어촌 노인이 노후 걱정 없이 살도록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1, 2인 가구용 모듈러 주택 10여 동을 집단 배치해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남형 안심 공동-홈'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9%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현실을 감안해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건 공약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 공모를 통해 3개소에 노후 걱정 없는 안심 효도주택 30여 세대를 공급한다.

농어촌 노인 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독립적 주거 공간을 집단화해 서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장래 빈집 발생이 예견되는 노후주택을 철거하는 효과도 있다.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등 복지서비스가 인접된 곳에 조성해 농촌의 중심지 기능을 살리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시장·군수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입주자에게 영구임대한 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임대료는 주거급여법의 임차급여사업과 연계 지원해 본인 부담이나 시설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이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 서킷서 드라이빙 배워요

전남개발公, 레이싱스쿨 운영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드라이빙 스킬을 배울 기회가 생겼다.

전남개발공사는 KIC 레이싱스쿨을 운영키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싱스쿨은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고급 드라이빙 스킬을 필요로하는 경력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췄다.

모터스포츠 입문자들을 위한 코너 공략, 그립 주행, 브레이킹 컨트롤 뿐 아니라 경력자들을 위한 레코드 라인 공략 및 랩타임 단축 등의 드라이빙 기술도 배울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레이싱스쿨을 위해 파주 드림레이서, 이천 범스 레이싱스쿨, 용인 TRK PROMOTION 및 광주 EZ 드라이빙 등 총 4개의 KARA 공인 교육기관을 선정해 진행한다. 운전면허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KARA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이수 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실기주행 교육을 받게 된다.

레이싱 스쿨 참여자들은 모두 5차례(회당 20분) 영암 서킷을 돌며 모터스포츠 기술을 배우게 된다. 교육 참가비, 라이선스 비용 등은 부담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건전하고 성숙한 레이싱 문화 정착 및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레이싱스쿨 교육기관을 전국 범위로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남개발공사 KIC 사업단(061-288-4203)로 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정은-푸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서 정상회담

김위원장 오늘 전용열차로 도착… 26일까지 체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유력일간 '코메르산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릴 것이며 김 위원장은 대학 내 호텔에서 묵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회담 뒤 곧바로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할 것이나, 김 위원장은 26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지난 2002년 방러했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30명의 방문단이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24일 새벽 북러 국경을 넘을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다. 코메르산트는 러시아를 처음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위해 여러 문화행사가 준비돼 있다면서 아직 프로그램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한 뒤 그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에 싣고 올 리무진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이동할 계획이다. 러시아 측은 리무진이 기차역 플랫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블라디보스토크 역사 차량 출입구를 20cm나 파내는 공사를 벌였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 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환 전문
빌딩/토지/임야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거리 대지 790㎡ 3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답 3818㎡ 투자가치 양호 1억5천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활적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1084㎡ 원룸·다세대 적합 8억7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접 4630㎡ 대형저수지 인근 노인병원·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평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동구 충장로 5가 최고 상업지 1707㎡ 다양한 사업 적합 84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세라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직)	
세라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점토벽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61)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 채용시까지